

기타리스트 리 릿나워와 래리칼튼 비교 분석 연구

진재영^{1*}, 조태선²

¹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 ²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Comparative Analysis on Lee Ritenour and Larry Carlton

Jae-Young Jin^{1*} and Tae-Seon Cho²

¹Division of Applied Music, YeoJu College

²Division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요약 리 릿나워와 래리 칼튼은 같은 세대를 풍미한 기타리스트이다. 그런 만큼 둘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본인들의 음악을 퓨전 재즈라는 장르로 완성 시켰다. 퓨전이라는 장르의 특성을 살려 늘 새로운 시도를 해왔고, 시대적 상황에 맞춰 음악적 융합을 만들어 내는 컨템포러리 재즈(Contemporary Jazz)의 선두주자임을 알 수 있다. 재즈라는 장르로 예술성과 상업성을 이룬 이 두 기타리스트의 업적은 매우 의미가 있다. 같은 장르, 같은 파트의 뮤지션이 이 같은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은 본인들의 음악적 표현 방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기타리스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화성적인 부분과 편곡적인 부분을 분석하고, 이들의 대표적인 앨범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음악적 방향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두 기타리스트의 관계를 통해 어떠한 음악적 성장이 있었는지 중점을 두고 분석 했다.

Abstract Lee Ritenour and Larry Carlton were the most popular contemporary guitarists. So we can find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in many ways. Also their abundant experiences and know-how made their own music into Fusion Jazz. They always tried to make new approach specializing Fusion Jazz genre, which makes us realize that they are the front runners of Contemporary Jazz mixing music with the situation of the time. This paper analyzes harmonic parts and arranged parts these two guitarists show and studies the musical meaning and characteristics their representative albums have. Also this paper focuses on some developments and growth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guitarists.

Key Words : Jazz, Contemporary, Fusion, Guitarist

1. 서론

재즈(Jazz)의 장르는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장르로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장르란 음악가의 창조적인 시도와 시대적 영향으로 탄생한다. 재즈 역시 음악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여러 가지 조합과 기술적 발전을 통해 탄생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음악가들도 매 순간 존재했으며, 그것을 발전시키는 수많은 연

주자 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들의 음악적 역량과 창의적인 생각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재즈는 소통하는 음악이기 때문이다. 많은 음악가들이 연주로서 소통하다보면 그 연주를 통한 교류로 인해 새로운 결과물들이 탄생되었던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생겨난 전자악기로 인해 보다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되었고 그만큼 표현 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해졌다. 이처럼 재즈는 조화와 융화, 시대적 상황, 과학의 발전, 음악가의 교류를 통해 역사가 쓰여

본 논문은 청운대학교 산업기술경영대학원 2014년도 석사 학위 논문 요약본임.

*Corresponding Author : Jae-Young Jin(YedJu College..)

Tel: +82-10-5335-6573 email: pakergt@nate.com

Received March 6, 2014

Revised April 10, 2014

Accepted May 8, 2014

왔다. 이와 같이 발전된 형태 중 하나인 퓨전 재즈(Fusion Jazz)는 재즈(Jazz)와 록(Rock)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베이스에 다양한 음악적 요소가 결합되어 하나의 또 다른 장르로 분류될 수 있다. 래리 칼튼과 리 릿나위는 재즈의 기본기를 바탕으로 알앤비(R&B)와 팝(Pop)의 요소를 결합하여 예술성뿐만 아니라 상업성까지도 갖춘 대표적인 퓨전 재즈의 연주자이다. 그들은 퓨전 재즈라는 같은 장르에서 활동하는 연주자이기 때문에 비슷한 성향의 사운드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서 이들의 사운드와 스타일을 분석해 보면 다른 성향의 연주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95년에 래리 칼튼과 리 릿나위가 함께 작업한 앨범인 <Larry&Lee>는 이 두 기타리스트의 협연 자체로 큰 이슈가 되었고 이 둘의 스타일을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본 논문은 이들의 생애와 작품을 분석하고 예술적, 상업적 성공요인과 뮤지션으로서 서로에게 어떤 영향력과 시너지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음악성과 대중성 있는 퓨전 재즈 작품들의 방향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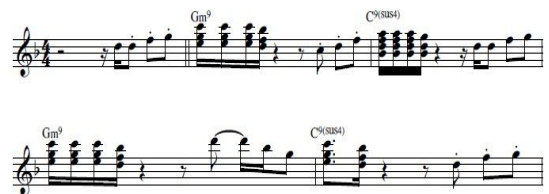
2. 본론

리 릿나위는 1952년 1월11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팔로스 버디스(Palos Verdes)에서 출생했고, 래리 칼튼은 서던 캘리포니아(Southern California) 토렌스에서 1948년 3월2일 태어났다. 둘 다 6살 즈음에 처음 기타를 손에 쥐게 되고, 10대 중반 때에는 음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었다. 이들은 어린 시절 습득했던 음악들인 재즈(Jazz)와 블루스(Blues) 뿐만 아니라 팝(pop), 락(Rock), 라틴(Latin) 음악까지 두루 섭렵하며 연주자로서 성장해 왔다. 이러한 과정을 지나 본인들의 음악을 퓨전 재즈라는 장르로 완성 시켰다. 퓨전이라는 장르의 특성을 살려 늘 새로운 시도를 해왔고, 시대적 상황에 맞춰 음악적 융합을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리 릿나위의 <Rio Funk>와 래리 칼튼의 <Rio Samba> 그리고 공동 작품인 <low Steppin'> 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2.1 Rio Funk

1979년에 발표한 앨범 <Rio>는 일본 JVC 레코드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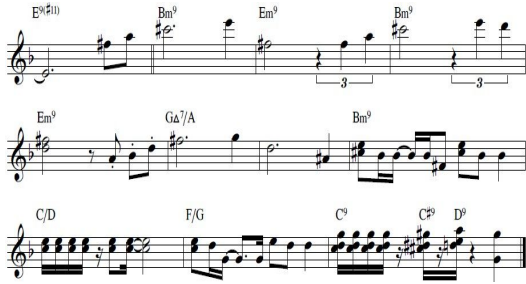
통해 발매 되었으며 어쿠스틱 기타로만 연주한 연주 앨범이다. 그 중 대표적인 Rio Funk는 브라질 삼바와 보사노바의 영향이 느껴지는 퓨전 재즈곡이다. 이 곡은 도입부에 핑키 한 베이스 연주가 인상적인 곡으로 이 앨범을 기점으로 브라질은 그의 음악의 주요 테마로 자주 등장한다. 래리 칼튼의 1978년 작품 Rio Samba를 생각해 보면 이 작품은 리 릿나위에게 다소 의도적인 면이 있는 곡이다. 브라질 음악에 남다른 애착이 있던 리 릿나위로서는 자신이 먼저 시도하지 않았다는 석연찮은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스타일에 핑키한 리듬을 접목해 더 새로운 퓨전스타일을 만들어 냈다. 결국 Rio Samba와 Rio Funk 두 곡 모두 지금까지 그들의 대표곡으로 중요한 학습 곡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곡의 연주자는 자주 호흡을 맞춰오던 데이브 그루신(Dave Grusin)과 슬랩 주법의 거장 마커스 밀러(Marcus Miller)의 연주가 돋보이는 곡이다. 이 곡은 많은 퓨전재즈 지망생들에게 교과서적인 곡으로 자리 잡고 있고 연습곡으로 많이 연주 되고 있는 곡이다. 그 이유는 간단한 코트 진행에 잼(Jam)형식의 곡 구성이지만 빈틈없는 편곡으로 정갈한 사운드를 만들었고, 핑키의 장점인 엷 박의 그루브를 많이 살려 연주했기 때문이다. 기타리스트 뿐만이 아니라 전 파트의 연주자들에게 학습하기에 알맞은 곡이다. 특히 퓨전재즈 앨범에 베이스 솔로파트가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흔치 않은 경우이다. Rio Funk는 본 앨범에 수록된 것 외에도 라이브 앨범과 베스트 앨범에 수록되어 리 릿나위의 대표곡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Fig. 1] A Part Head Melody

위의 Fig. 1은 헤드 멜로디 A파트 부분이다. F Key의 두 파이프 진행만을 이용한 Gm7, C7 에서 멜로디를 전개해간다. 두 마디 패턴이지만 뒤로 갈수록 멜로디 변주를 통해 주제를 발전시키는 연주를 하고 있다[1]. 이 앨범 전체가 어쿠스틱으로 녹음되어 있듯이 나이롱 기타의 장점을 살려 핑키한 리듬위에 감각적인 멜로디 라인을 선보이고 있다. 퍼커션파트의 웨이크를 이용한 연주로 리듬

의 기준을 잡고 있고, 베이스기타는 정박에 연주하고 드럼의 하이햇은 8분 쉼표를 이용한 엇 박에 연주함으로써 연주에 빈틈을 모두 채워주고 있다. 또한 리듬 기타가 적절히 배치되어 있고 일렉트릭 피아노는 긴장감을 풀어주는 연주를 하고 있다.



[Fig. 2] B Part Head Melody

B 파트부터는 브라질 리듬으로 바뀌어 연주를 하는데 위의 Fig. 2에서와 같이 2박 3연음 스타일의 싱크로페이션을 사용함으로써 코드가 바뀔 때 마다 안정감을 주고 있다. 선율에도 스타카토 주법을 사용함으로써 핑키한 느낌을 계속 유지 시켜주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기타 멜로디 사이에 피아노 멜로디를 삽입함으로써 인터플레이(Interplay)느낌으로 연주하고 있고 마지막엔 모든 파트의 섹션으로 마무리 한다[2].

Fig. 3은 A파트 코드 진행을 이용한 기타 솔로 부분이다. Gm7 코드에서는 b3도와 b7도를 이용한 도리안(Dorian) 스케일을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G 펜타토닉 스케일의 Blue Note인 C# 노트를 경과음으로 사용하고 있다. G 도리안 스케일은 C7 코드 에서 볼 때 C 믹소리디안과 같은 음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연주를 하고 있다.



[Fig. 3] Guitar Solo

Tonic으로 해결하지 않는 코드 진행에서 펜타토닉 스케일과 도리안 스케일을 병행함으로써 기타라는 악기가 주는 블루지한 느낌을 잃지 않고 표현할 수 있다[3].

2.2 Rio Samba

재즈는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해 왔다. 특히 리듬 적인 면에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도입하였는데, 아프리카, 쿠바, 브라질 등의 민속음악에서 리듬을 많이 차용해 왔다. 그리하여 퓨전재즈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시도가 계속 이어져 왔고 하나의 유행이었다. 리 릿나워의 음악적 배경에 브라질 음악이 자리 잡고 있는 점을 본다면 래리 칼튼의 이러한 시도는 퓨전 재즈 기타리스트로서 동시대를 풍미한 뮤지션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래리 칼튼의 연주가 전반적으로 블루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러한 브라질 리듬을 도입한 작품은 두 기타리스트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래리 칼튼의 많은 정성이 들어가 있는 이 앨범에서 퓨전 재즈 기타리스트로서 새로운 음악적 접목은 당연히 시도되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곡은 Room335 앨범이라고 불리는 래리 칼튼의 1978년도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다. 초창기 앨범에는 훗날 명성을 떨친 연주자들이 많이 참여하였는데 그룹TOTO의 드러머였던 제프 포카로(Jeff Porcaro)와 피커션 연주자인 파울리노 다 코스타(Paulinho da Costa)의 연주가 곁들여져 흥겨운 브라질 리듬 위에 펼쳐고 있다. 베이스기타의 아브라함 라보리엘(Abraham Laboriel) 또한 퓨전 재즈계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 베이스리스트로 당대 최고의 베이스 연주자라고 할 수 있다. 이 곡은 곡 구성이 간단하기 때문에 임프로바이즈에 많은 중심을 둔 곡이다. 건반 솔로와 베이스 솔로까지 많은 마디를 할애한 것을 보면 연주자들의 테크닉적인 면을 부각시킨 곡이다.



[Fig. 4] A Part Head Melody

위의 Fig. 4를 살펴보면 Bb Key 와 A Key가 4마디씩 번갈아가는 12마디 형식이다. 사용되어진 코드는 각각의

도미넌트 세븐 코드인 F7코드 E7코드 위에서 멜로디를 연주한다. F 믹소리디안 스케일과 E 믹소리디안 스케일을 사용해서 똑같은 헤드 멜로디를 각 키에 맞춰 연주하고 있다. 16 Beat의 음표와 쉼표가 적절히 사용되어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4] 리듬파트는 곡 제목에 맞게 브라질 삼바리듬을 현란하게 연주하고 있다.



[Fig. 5] Guitar Solo

이 곡의 임프로바이즈 부분이다. Fig. 5를 보면 10 마디 패턴으로 되어있고 Bb Key에 도미넌트 세븐 코드인 F7 위에서 믹소리디안 스케일을 이용한 솔로이다. 130템포의 16분 음표를 많이 사용하여 빠른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마지막 두마디는 E7 코드를 배치함으로써 턴 어라운드(Turn Around) 역할을 하고 있다. 래리 칼튼은 기타라는 악기가 잘 표현하는 블루스적인 느낌을 잘 표현 하며 퓨전적인 의미에서 삼바리듬의 도입과 함께 락(Rock) 음악의 느낌까지 잘 융화되는 연주를 하고 있다. 이 곡은 래리 칼튼의 음악적인 부분과 테그닉적인 부분까지 잘 집약된 곡이다[5].

2.3 Low Steppin

<Larry & Lee> 앨범에 유일하게 공동 작곡으로 되어 있는 곡이다. 이 곡은 래리 칼튼의 1990년 앨범 <Alone/But Never Alone>에 수록된 High Steppin' 곡의 인트로 부분을 샘플링 했다. 래리 칼튼이 가지고 있는 모티프에 리 릿나위의 아이디어가 더해져 완성된 작품이다. 이 곡은 샘플링된 간단한 코드진행위에 각자의 느낌을 살려 임프로바이즈(improvise)를 중심으로 연주 하고 있다. 서로 번갈아 가며 연주를 하고 있지만 상대방의 연주를 듣고 함께 호흡하는 느낌으로 인터플레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같은 멜로디 혹은 같은 주법이라도 본인들만

의 느낌이 잘 살아있는 연주곡이다. 리 릿나위는 깁슨 엘 파이프(Gibson L5) 기타를 사용하고 있고 래리 칼튼은 펜더 스트라토캐스터(Fender Stratocaster) 기타를 사용하고 있다. 사운드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비슷한 톤(tone)을 내고 있지만 각 악기의 특성을 살린 연주와 두 기타리스트의 개성 있는 표현력을 구별하여 느낄 수 있다. 전반적인 편곡 느낌은 포플레이의 사운드가 연상된다. 이 작품의 결과로 래리 칼튼의 포플레이 영입은 당연한 결과였던 것이다. 퓨전 재즈계의 정상에 있는 두 기타리스트의 연주를 한자리에서 들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작품이다. 이 곡을 통해 이 두 기타리스트의 곡 해석법과 멜로디 구성법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분석해 본다.



[Fig. 6] Lee Ritenour Head Melody

Fig. 6은 리 릿나위가 연주하는 헤드 멜로디 부분이다. 옥타브 주법을 잘 사용하던 웨스 몽고메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듯이 리 릿나위는 이 부분을 옥타브 주법으로 연주 하고 있다. 할로우 바디의 기타를 사용한 것도 이 주법이 잘 어울리는 기타이기 때문이다. 헤드 멜로디의 구성은 Ebm Key로 8마디를 만들고 Cm Key로 4마디를 연주한 후 다시 Ebm Key로 4마디 진행되는 방식이다. Ebm - Gb - B - Abm 진행에서는 철저하게 Eb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로 멜로디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9마디에서부터 일시적인 조바꿈으로 Cm Key에서 연주 한다. 코드의 9음으로 시작하고, Abm7 코드에서는 코드 구성음을 사용한다[6].



[Fig. 7] Larry Carlton Head Melody

Fig. 7은 헤드 멜로디를 래리 칼튼이 연주하는 부분이

다. 리 릿나워와는 다르게 밴딩(bending)주법을 많이 사용하는 플레이를 하고 있고 연주 자체도 강약 조절을 통한 다이내믹을 극대화하며 연주 하고 있다. 옥타브 주법으로 연주했던 리 릿나워와는 달리 단음을 연주하기 때문이 해머링 이나 풀링 같은 주법을 사용함으로써 꾸밈음의 효과도 잘 살리고 있다. 악기의 특성에 맞게 플레이 하기위해 사용하는 주법이 리 릿나워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Fig. 8] Larry Carlton and Lee Ritenour Improvise

두 기타리스트가 4마디씩 번갈아가며 연주하는 부분이다. 본인들의 특징을 잘 살려서 마무리 연주를 하고 있다. 래리 칼튼은 Dm7코드 위에서 연주를 하고 리 릿나워는 Bb7코드 위에서 연주를 한다. 블루스에 강한 래리 칼튼 연주답게 밴딩의 감각적인 조절과 기타음의 서스테인 효과를 살리면서 연주하고 있다. 리 릿나워는 메이저 세븐 코드의 #11도 노트를 사용함으로써 리디안 스케일의 효과를 사용하면서 연주하고 있다[7].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기타리스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화성적인 부분과 편곡적인 부분을 분석하고, 이들의 대표적인 앨범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음악적 방향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두 기타리스트의 관계를 통해 어떠한 음악적 성장이 있었는지 중점을 두고 분석 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두 기타리스트는 탁월한 연주력을 가진 멤버들과 작업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 라틴 리듬을 도입하기도 하고, 팝음악과 같은 대중적인 사운드의 작품도 만들었다. 이 처럼 둘 다 비슷한 시도를 하였지만 방법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리 릿나워의 경우는 함께 연주하는 연주자들의 역량이 잘 드러나는 편곡방식을 취했다. 당시 최고의 연주자들과의 작업을 통해 많은 시도를 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연주했느냐에 따라 그 앨범의 색깔이 정해지는 부분이 있다. 반면 래리 칼튼의 경우는 기타라는 악기가 중심이 되고 있다. 기타의 선율적인 부분에 많이 치중해 있고, 임프로바이즈 또한 매우 섬세하게 연주하고 있다. 그리고 앨범마다 많은 연주자들과 작품을 해온 리 릿나워와는 달리 같이 연주하는 멤버 또한 많은 변동이 없었다. 이러한 차이점이 각각의 음악적 개성을 나타내는데 영향을 미친 부분이다. 또한 이 두 기타리스트가 몸담았던 그룹 스틸리 댄(Steely Dan)과 포플레이(Fourplay)를 통해 이들이 비슷한 성향의 기타리스트임을 알 수 있다. 그룹의 사운드에 크게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들의 특징을 잘 살리는 연주를 보여주고 있다. 재즈라는 장르로 예술성과 상업성을 이룬 이 두 기타리스트의 업적은 많은 연주자들에게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오면서 서로에게 끼치는 영향 또한 많았다. 그런 의미에서 1995년 발표된 <Larry & Lee>는 매우 의미 있는 앨범으로 평가된다. 이 둘의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앨범이기 때문이다. 각자의 특색 있는 기타플레이로 비슷한 성향의 음악을 펼치는 것이 아주 잘 집약 되어있다. 이 앨범 이후 래리 칼튼이 리 릿나워의 후임으로 포플레이(Fourplay)에 영입된다. 오랜 세월 라이벌의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동반자가 된 것이다. 이처럼 리 릿나워와 래리 칼튼은 같은 세대를 공존했다. 지금까지도 이 둘은 새로운 뮤지션들과 함께 연주하며 자신만의 음악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이 두 뮤지션은 퓨전 재즈계의 독보적인 기타리스트임을 분명하다.

References

- [1] Fusion Jazz Guitar Lee Ritenour, SAM-HO Music Publishing, 1992
- [2] Rock Guitar series Lee Ritenour, Sam-Ho Music Pulishing, 1989
- [3] Adlib Technique for Guitarist, DARA Edition, 1991
- [4] Leon White, Larry Carlton Songbook, Belwin Mills PMP, 1980
- [5] Rock Guitar series Larry Carlton, Sam-Ho Music

Publishing, 1989

[6] Mark C. Gridley, JAZZ STYLES history and analysis, SAM-HO Music Publishing, 2002

[7] Toshihiko Iida, Jazz Harmony, Hyeonyul Music Publishing, 2001

진 재 영(Jae-Young Jin)

[정회원]



- 2001년 2월 : KBS 개그콘서트 전속밴드
- 2008년 3월 ~ 현재 :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 외래교수
- 2010년 6월 : 퓨전재즈 그룹 Second Nature 싱글앨범 제작
- 2014년 2월 : 청운대학교 산업기술경영대학원 석사

<관심분야>

실용음악, 기타, 음반제작

조 태 선(Tae-Seon, Cho)

[종신회원]



- 1983년 10월 : MBC대학가요제 금상 수상
- 1988년 3월 : Solo 1집앨범 발표
- 1995년 12월 : 뮤지컬 왕과나 음악감독 (서울 예술의전당공연)
- 2002년 4월 : TJB 음악토크쇼 음악이 머무는밤 MC
- 2001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관심분야>

실용음악, 보컬, 싱어송라이터